대형괘불 시초 '무량사 미륵불 괘불도' 국보된다


국보로 지정예고된 '부여 무량사 미륵불 괘불도'.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대형 규모 괘불도의 시작점으로 평가받는 '부여 무량사 미륵불 괘불도'가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로 지정된다.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조선 후기 괘불도인 '부여 무량사 미륵불 괘불도(扶餘 無量寺 彌勒佛 掛佛圖)'를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로, 고려시대 문인 이규보의 문집 〈동국이상국전집〉 권18~22, 31~41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각각 지정 예고했다"고 3월 6일 밝혔다.

괘불도는 사찰에서 야외 의식을 거행할 때 내거는 대형 불화로, 압도적 규모와 다양한 도상은 세계 어느 나라의 불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만의 독창적인 문화유산이다. 조선 후기에 본격적으로 조성되는 괘불도는 처음에는 본존이 결가부좌하고 있는 좌상 형식으로 그려지다가 점차 입상 형식으로 바뀌면서 크기도 상대적으로 커졌다.

괘불도는 17세기부터 20세기까지 지속적으로 조성되었으며, 현재 '칠장사 오불회 괘불' 등 7점의 국보와 '죽림사 세존 괘불' 등 55점의 보물을 포함해 현재 전국적으로 약 120여 건이 전해진다.

이번의 국보 지정 예고는 1997년 7점의 괘불이 동시에 국보로 지정된 이후 약 30년만이다.

△화기 등의 기록에 제작자, 화제(畵題) 등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고 학술적 가치가 큰 작품 △동일 유형의 도상 중 가장 선구적이어서 해당 도상 확산에 영향력이 큰 작품 △장황 등 구성 요소가 완전하고, 전하는 과정에서 변형이나 왜곡이 적으며 표현 기법 등 예술성과 제작 기술이 탁월한 작품 등을 지정 기준으로 했다.

이번에 국보로 지정 예고된 '부여 무량사 미륵불 괘불도'는 길이가 약 14m에 달하는

국가유산청 3월 6일 지정예고
韓불교만 있는 특유 대형불화
14m '장엄신 괘불'에 시작점
충청 미륵불 신앙 전통 보여줘

초대형 규모로, 머리에 화려한 보관을 쓰고 신체를 아름답게 장식한 모습의 보살형 입상 형식으로 표현되었는데, 이러한 장엄신(莊嚴身, 괘불에서 머리에 화려한 보관을 쓰고 신체를 아름답게 꾸민 부처님) 괘불의 시작점을 연 작품이라는 점에서 미술사적으로 중요하다. 초대형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균형 잡힌 자세와 비례, 적·녹의 강렬한 색채 대비, 밝고 온화한 중간 색조의 조화로운 사용으로 불화의 숭고함과 장엄함을 효과적으로 구현했다.

이 괘불은 화기(畵記)를 통해 법경(法冏)·혜윤(慧允)·인학(仁學)·희상(熙尙) 등의 제작 화승과 1627년(조선 인조 5년)이라는 제작 연대를 명확히 알 수 있는데, 기존에 국보로 지정된 다른 괘불도들 보다도 제작 연대가 앞선다.

또한 화기에 '미륵(彌勒)'이라는 주존의 명칭을 밝히고 있어, 일찍이 충청지역에서 유행한 미륵대불 신앙의 전통 속에서 제작된 괘불도임을 알 수 있다. 이후에 제작되는 유사한 도상의 괘불 제작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 우리나라 괘불도의 확산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국가유산청은 "'부여 무량사 미륵불 괘불도'는 규모·장엄성·시기성·상징성·예술성 등에 있어서 우리나라 괘불도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으므로 국보로 지정하여 보존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보물로 지정예고된 〈동국이상국전집〉권18~22, 31~4은 고려 중기의 학자이자 관료인 이규보(李奎報, 1168~1241의 문집이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이번에 지정 예고한 '부여 무량사 미륵불 괘불도' 및 〈동국이상국전집〉권18~22, 31~41에 대해 3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와 보물로 각각 지정할 예정이다.

불교중앙박물관 문화유산 소장처 교육

3월 18일 대면 강의 진행
3월 19~24일 온라인 교육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관장 서봉 스님)이 "2025년도 문화유산 다량소장처(이하 다량소장처) 소장자·관리자 기본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대면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여 진행하며, 대면강의는 3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온라인 교육은 3월 19일부터 24일까지 6일간 불교중앙박물관 홈페이지에서 수강할 수 있다.

올해 기본교육은 '불교건축'을 주제로 총 5강으로 진행된다. 제1강은 3월 18일 오전 9시부터 이강근 모란미술연구소장이 '불교 건축의 이해'를 주제로 불교 건축의 기원과 성격, 한국 사찰 건축의 역사를 폭넓게 설명한다. 제2강은 3월 18일 오후 2시부터 류성룡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가 '사찰 목조 건축의 구조와 이해'를 강의한다.

제3강부터 제5강까지는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제3강은 홍병화 STD엔지니어링 문화연구실장이 '조선후기 사찰 배치형식의 특징 및 변화'를, 제4강은 엄기표 단국대 자유교양대학 교수가 '한국 불탑의 흐름'을, 제5강은 오세덕 경주대 문화유산학과 교수가 '불교 건축과 승려 장인'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

교육 신청은 3월 11일 오전 9시부터 3월 12일 오후 4시까지 양일간 불교중앙박물관 홈페이지(온라인 접수)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마감한다. 신중일 기자

종정 성파 대종사 "자비의 마음으로 살라"

BTN 30주년 기념법회서 법문
자광 대종사 등 1000명 운집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가 개국 30주년을 맞은 BTN불교TV(대표이사 구본일, 이하 BTN)의 발전을 축원하고, 사부대중에게 부처님 법을 신봉하며 자비의 마음으로 인생을 살 것을 당부했다.

BTN은 3월 2일 서울 방배동 BTN 사옥 1층 무상사에서 '개국 30주년 기념 성파 대종사 초청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종정예하 성파 대종사와 원로의장 불영 자광 대종사, 전 전계대화상 무봉 성우대종사를 비롯해 부산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 중앙승가대 교수 금강·자현 스님, 구본일 대표이사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했다.

법문에 앞서 "BTN 개국 30주년을 축하한다"고 축원한 성파 대종사는 설잠 스님(김시습)의 시 '사청환우(乍晴還雨)'를 인용해 현


3월 2일 열린 BTN불교TV 개국 30주년 기념법회에서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가 법문을 설하고 있다.

시국을 살아가는 불자들의 자세를 설했다.

"사청환우우환청(乍晴還雨雨還晴) 천도유연황세정(天道猶然況世情). 예아변시환훼아(譽我便是還毁我) 도명각자위구명(逃名却自爲求名). 화개화사춘하관(花開花謝春何管) 운거운래산부쟁(雲去雲來山不爭). 기어세인수기인(寄語世人須記認) 취환무처득평생(取歡無處得平生)."

성파 대종사는 설잠 스님의 시에 대해 "비가 오고 다시 개듯이 사람들의 인정 또한 그러하다. 나를 칭찬하다가도 갑자기 비난하고, 공명을 피하려 하더니 스스로 공명을 좇는다"며 "평생 계속될 기쁨은 어디에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즘 시국을 보면, 모두 자기가 옳다고만 말한다. 하지만 우리 불자들은 자기 주장만 하지말고 남의 생각과 이야기를 경청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면서 "이전 시대일 수록 불자들은 부처님을 법을 잘 믿고 따라야 한다. 부처님 법을 신봉하고 자비의 마음으로, 보시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꿋꿋하게 열심히 살아가자"고 당부했다.

BTN은 1995년 3월 1일 개국하며, '세계 최초 불교 전문 TV방송'의 시작을 알렸다. 지난 30년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계에 전한다는 사명아래 한국 최대의 영상 법당으로서 최선을 역할을 하고자 노력했던 불교TV는 오늘날 한국을 대표하는 불교종합미디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BTN은 3월 7일까지 지난 30년 동안 시청자가 보내준 성원에 보답하기 위하 특별프로그램들을 편성했다. 특히, 3월 6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함께 이룬 30년, 다시 뛰는 BTN' 주제로 특별생방송을 진행했다. 신중일 기자

양자역학으로 본 연기법

한국불교연구원, 원효학당 개설
강사에 양형진 고려대 명예교수

(사)한국불교연구원(원장 이주형)은 3월 19일부터 4월 9일까지 4주간 매주 수요일 '2025년 원효학당(1) 강좌'를 진행한다.

'현대물리학으로 보는 불교: 양자역학과 상대성이론으로 보는 연기와 무아의 진공묘유(眞空妙有)'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강좌는 양형진 고려대 명예교수가 강사로 참여한다.

강의는 '연기적 그물망에서 나타나는 허망한 세계와 연기공(緣起空)'을 시작으로 △'상대성이론의 세계(3월 26일)' △'양자역학의 세계에서의 참여(4월 2일)' △'유위의 세계와 무아: 알고 보면 우리가 사는 세간도 그렇다(4월 9일)'로 진행된다.

강좌는 (사)한국불교연구원 서울법당에서 진행되며, 유튜브 라이브도 함께 진행한다. 강좌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한국불교연구원 홈페이지(https://kibs.or.kr)를 통해 수강신청을 하면 된다. 02-762-5624 신중일 기자



04 인문학 독자를 위한 니까야 (최경아 지음, 17,000원)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경이로운 열쇠
05 인문학 독자를 위한 반야심경 (이태승 지음, 17,000원) 260자로 압축된 대승불교의 진수
06 인문학 독자를 위한 육조단경 (김호귀 지음, 17,000원) '나'와 '세계'에 대한 감동적인 선언

불교 입문자와 인문학 독자를 위해
주요 경전의 핵심 내용만 쏙쏙!

인문학 독자를 위한
불교 경전 4~6권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작고 가벼운 판형
부담 없이 읽어 보는 나의 첫 불교 경전 입문서



01 인문학 독자를 위한 금강경 (김성옥 지음)
02 인문학 독자를 위한 법화경 (하영수 지음)
03 인문학 독자를 위한 화엄경 (박보람 지음)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